

출판과 圖書館

李 璟 薰

(大韓出版文化協會事務局長)

1. 머릿말

나는 出版의 發展은 圖書館의 발전과 같은 軌道 위에 있다는 立場을 취한다. 왜 이런 立場을 머릿말 冒頭에 못 박고 넘겨야 하는가 하면 지난 5월에 열렸던 IPA(國際出版協會) 제20次 정기총회에서 보고된 덴마크의 圖書館의 活動을 보면 그 나라의 出版賣上冊數보다 圖書館의 貸出冊數가 훨씬 많았다. 이로 인하여 出版의 存立에 앞으로 위협을 느낀다는 內容에 接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나라의 事情도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圖書館과 出版과의 관계가 얼마나 密接한가에 관해서는 길게 말할 必要가 없는 것이다. 이것은 다음에서 말하는바와 같이 너무나 簡明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社會生活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情報를 생산한다. 그 정보를 文字化한 것 즉 「글로 쓴 것」 이것이 圖書인 것이다. 「글로 쓴 것」은 본래 「읽는다」는 屬性이 있는 법이다. 그러므로 「글로 쓴 것」의 社會化를 圖謀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그 社會化의 가장 最良의 方法이 「出版」인 것이다. 말하자면 出版이란 단 하나 밖에 없는 글로 쓴 原稿의 社會化의 方法인 것이다.

한편 「글로 쓴 것」은 읽어야한다. 그 「읽는다」는 行爲의 가장 社會性을 띤 活動이 「圖書館」이라고 말할수 있다. 萬物의 靈長이라고 부르는 人間은 그의 양 어깨에 「文化」라는 찬란한 物體를 질머지고 있다. 그런데 이 文化를 지탱하고 계승 발전하는 基本的인 方法은 「글로 쓰는 것」 「읽는 것」이 두가지인 것이다.—

나는 이 머릿말에 한가지 더 紹介하고자 하는 것은 近代圖書館思想의 先驅者이며 불란서의 公共圖書館의 始祖인 가부리엘·노오드(Gablier-Naude:1600—53)의 사상이다. 그가 心血을 기울여서 만든 「마사란圖書館」 入口에 새겨놓은 말——「이 圖書館은 모든 言語, 모든 學術·科學에 관한 圖書를 收藏하고 배우고자하는 모든 사람에게 門戶를 개방한다,——이 얼마나 三百餘年前의 있었던 자랑스럽고 偉大한 말이 아니겠느냐.

노오드의 思想 即 「누구든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책이든지」라는 圖書館 서비스의 基本은 오늘날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의 입에서도 곧잘 傳해진다.

그러나 三百餘年前의 이 말대로와 우리나라 圖書館의 現實과는 그 거리가 너무나 멀다.

2. 圖書館과 出版業과의 關係

나는 우리나라 圖書館界와 出版業界의 視野를 좀 넓게하는 의미에서 머릿말에서 잠깐 비친바와 같이 지난번 IPA總會에서 덴마크代表가 보고한 「公共圖書館과 民間出版業과의 關係」란 主題의 要旨 內容을 우선 소개하겠다.

〈各國과 對比〉

덴마크는 公共圖書館制度 全體를 유지하는데 國民 1人 年間 17弗을 쓰고 있으며 스웨덴 오스트라리아 노르웨이 핀란드에서의 國民 1人 當 그것은 9.3\$, 7\$ 4.6\$, 4\$이며 美國은 國民 1人 當 겨우 1\$ 以下인 것이다.

덴마크의 公共도서관은 年間 7,600萬卷의 圖書貸出을 하는데 이에 比하여 民間出版業이 發行販賣한 圖書는 4,200萬卷에 不過하다. 스웨덴은 圖書 年間 賣上이 5,300萬卷에 달하는데 圖書館 貸出의 冊數는 9,200萬卷이나 된다. 이와는 달리 日本에서는 4,800萬卷의 圖書館 貸出에 대하여 賣上은 6億3,500百萬卷 以上을 記錄하며 佛蘭西는 貸出冊數 5,800萬卷에 대하여 賣上冊數는 2億6,900百萬卷에 달한다.

덴마크의 書店數는 625店인데 대하여 公共圖書館(學校圖書館 包含)은 2,600個所의 서비스施設을 갖고 있다. 스웨덴은 書店數 480個에 대하여 圖書館施設은 6,540個가 있다. 그런데 日本은 書店 2萬3千個에 대하여 도서관 시설은 겨우 950個에 不過하다.

〈덴마크의 公共圖書館〉

덴마크의 公共圖書館制度가 처음 시작된 것은 1920年이다. 처음엔 활발치 못하였다. 第2次世界大戰 발발당시만 하여도 圖書貸出 冊數는 賣上冊數의 겨우 50%에 불과했었다. 그당시만해도 圖書館利用者는 圖書의 興味를 갖기 때문에 앞으로 圖書購入者가 될 것이다. 즉 圖書館貸出活動은 圖書의 販賣高를 伸長한다고 보는것이 一般的인 생각이었다.

戰後 덴마크는 福祉國家를 실현함과 동시에 거의 모든 政黨에서도 公共圖書館運動은 神聖不可侵한 것처럼 되었다. 덴마크議會는 公共圖書館은 文化를 普及하는 存在인 限 補助金を 支給하는 것은 當然한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덴마크에서는 公共圖書館은 地方自治體에 소속된 기관이었으나 이와같은 생각에서 財務部가 自治團體에 代身하여 圖書館 費用의 一部를 부담하게 된 것이다. 종래의 허술한 서비스 施設을 바꾸어 훌륭한 圖書館 建物を 신축하고 國家의 威信이 관제되는 문제로 올려 놓았다.

발족 당시는 공공도서관은 교육정책을 내세우고 圖書는 主로 後代를 위한 책을 우선 구입하였었는데 1960年代가 되면서 이 政策을 바꾸고 時事的인 관심이 많은 베스트셀러를 重視하게 된 것이다.

이리하여 出版社는 도서관의 貸出冊數의 증가에 關心을 갖게되었고 公共圖書館은 「無料의 書店」으로서의 기능을 새로이 主張하게 되었다.

또 도서관의 이와같은 旺盛한 대출활동에 의하여 出版社와 出版市場(書店)뿐 아니라 著者도 窮地에 몰리게 되었다.

〈公共貸出權〉

이런 狀況에서 생각된 것이 著者와 出版社를 위한 「公共貸出權」인 것이다.

1946年 이래 덴마크政府는 學校圖書館과 公共圖書館을 통하여 圖書貸出의 보상으로 「덴마크 著作家 基金」을 통하여 每年 一定한 금액을 著作者에게 支給하고 있다.

〈現狀〉

덴마크政府는 1976年의 圖書館豫算으로서 1億2,500萬弗을 策定하였다. 이 豫算은 史上 最高이며 덴마크年間 圖書 總發賣額과 거의 同類에 가깝다. 圖書館운영비는 國民人當 25\$弗이란 新記錄을 達成했다.

덴마크의 出版社와 書店은 當然히 괴로운 立場에 놓여있다.

最近 圖書館과 出版社와의 관계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서관관계자 출판사 서점으로 구성된 委員會가 설치되었다. 이 委員會는 各當事者間 서로 관심있는 문제에 대하여 各自의 立場을 말하는 접촉의 장소를 제공한다. 圖書의 購買者 貸出者이건 間에 독자층을 넓히는데는 도서관과 출판업계가 상호 協力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덴마크出版協會의 所信인 것이다.

나는 이 報告에서 公共圖書館 운영이 너무 活潑히 잘 되는 나라에서는 民間出版業界에 또 씩다른 문제점이 派生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덴마크는 이것을 克服하기 위하여 관계자간의 對話를 갖고 해결

책을 찾고 있는 것이다.

또 이 보고서에서 가장 우리에게 重要한 것은 示唆을 준 것은 圖書館施設이 많은 나라에서는 書店數가 적고 書店數가 많은 나라에서는 圖書館數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事情은 어떤가. 公共圖書館數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적고 또 書店 亦時 그 數나 규모가 적을 뿐더러 人口比例 地域按配가 되어 있지 않다. 이와같이 圖書館과 書店 두가지 모두가 不實한 것이라면 文化國家로서의 體面을 갖추지 못한 것이된다. 그러므로 圖書館界와 出版界는 서로 協力하여 圖書館施設 늘이기와 書店數 늘이기에 힘써야 할 때인 것이다. 이와같은 着眼에서 出協은 書店들르기 運動을 提唱하고 있는 것이다.

3. 出版量 年間 1萬種 突破!

나는 本稿에서 圖書館界에 자랑삼아 報告할 것이있다. 그것은 올해에 우리나라 出版量이 種數統計에서 1萬種 突破의 快收를 올렸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出版統計는 最近 몇년 사이에 新刊 種數가 急增하고 따라서 그 內容도 細分化 多樣化 高度화된 것이다. <表1>에서 보는 바와 같이 75年度에 9,000種을 초과하였고 今年末에는 지금의 추세로보아 1萬種을 능히 突破할 것이 확실시되는 것이다.

〈表 1〉 最近年度別圖書發行量(1970~1975年)

年 度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8月
發行量	2,593	2,917	4,469	7,123	7,018	9,225	8,588

解放後 우리나라 出版統計가 記錄에 나타난 最初의 것은 1947年의 950種이다. 그때부터 約 30年이란 긴 歲月에 걸쳐 우리는 約 10倍의 出版種數의 증가를 達成한 것이다. 70年代初까지만 하여도 不過 2千種線에서 맴돌던 統計가 最近 3年사이에 계속 7千, 9千, 1萬種으로 急增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반가운 事實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1976年度를 起點으로 年間 發行種數 1萬種을 突破한다는 획기적인 事實에 우리는 다같이 注目해야 할 것이다.

出版文化가 오늘날과 같은 高度로 복잡한 産業社會에 先導의인 寄與를 하고자 多樣하게 專門化되고 高度화된 各種 圖書를 出版한다는 것은 韓國出版界의 將來를 위하여 밝은 조짐인 것이다. 우리는 오랜 歲月 出版種數의 伸張을 위하여 얼리나 많은 모험과 精進을 거듭했던가. 지난 70年(불과 5年前) 우리는 2千5百種線에 지나지 않았을 때에 이웃 日本은 2萬種을 넘었었으니 그때에 우리들의 조바심은 무엇으로도 形容할수

없었다.

그러나 이 1萬種 突破만으로 滿足할 수가 없는 것이다. 올해에 到達한 이 1萬臺線은 앞으로의 跳躍의 발판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出版文化를 더욱 堅實하게 쌓아올려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첫째 出版文化의 質과 量을 함께 지금보다 높은 水準에 올리기 위하여 밖으로 우리의 視野를 넓여서 先進國과 比較하여 落後된 原因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도 急先務라고 믿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 이 萬種圖書의 擴大再生産과 100% 有効化를 위한 적극적인 說得活動이 緊要하다고 생각된다.

바꾸어 말하면 이제는 年間 1萬種以上の 各種 책이 出版되고 우으니 더욱 많이 책을 읽으라고 國民에게 呼訴할 수도 있고 每日 平均 30種에 가까운 新刊圖書가 出版되고 있으니 公共圖書館 또는 學校圖書館 施設을 늘리라는 이유도 더욱 뚜렷하다고 보는 것이다.

한국출판계의 발전상을 보다 적극적으로 과시하기 위하여 今年の 제20회 전국도서전시회는 더 많은 讀者에게 자랑시키기 위하여 地下鐵 鍾閣驛 전시장에서 열었다. 그리고 地方展도 釜山 以外에 새로 湖南의 雄都 光州에서도 열었다. 이 展示를 돌아 본 地方行政의 長, 教育者 그리고 平素 무관심했던 潛在讀者의 눈을 끌었고 모든 國民으로부터 우리 圖書文化에 대하여 굳건한 信賴를 보냈던 것이다.

그리고 今 76년에는 世界 各地에서 열렸던 1個 國際 圖書展會에 참가했다. (지난 어느해 보다도 많이 참가한 것임) 이같은 國際展示會의 參加는 韓國 圖書水準의 우수성을 誇示하고 우리의 傳統文化를 紹介하여 우리 民族의 文化的 地位를 宣揚했다.

4. 맺는 말(反省)

協會의 일을 보는 관제로 나에게 韓國出版界의 當面 問題를 물어오는 경우가 왕왕있게 마련이다. 그럴 때는 다음 두가지로 대답을 要約한다.

첫째 재미있게 써주는 原稿가 드물고 둘째 읽는 이가 적으며 圖書館機能이 미약하다고 말한다. 재미있는 원고가 없어서 出版할 素材가 없고 한편 도서판에서는 收書할 가치있는 圖書가 出版되지 않는다면 이 결과에 대한 책임을 남에게 轉嫁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圖書館界와 出版界는 서로 힘을 합하여 우리 社會에서 재미 있는 원고가 쏟아져 나오도록 자극하고 이 렁게하여 좋은 책이 出版이되면 國民에게 많이 읽히도록 하기 위하여 奉仕活動을 擴張하고 改善하고 共同努力이 絕對적으로 필요하다.

우리 社會에서 재미있고 有益한 원고가 量産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러서 부터의 讀書指導와 讀書習慣이 涵養되어야 한다. 이러한 活動은 公共圖書 이나 學校圖

書館의 기능중의 중요한 部分이다. 우리 出版界는 아직도 司書의 이러한 職能을 올바로 인식 못하고 있는데 대하여 平素 未安한 마음을 갖고 있다. 圖書館이 直接的으로 出版文化의 발전과 向上을 위하여 不斷히 努力하고 있다는 點을 強調드리는 이유는 圖書館界와 出版界 兩分野가 서로 앞으로 더욱 긴밀한 協力關係를 적극적으로 구축하자는데 그 뜻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날을 反省해야한다. 이제는 出版學도 배스콤의 一分野로서 科學化에 힘써야 한다. 出版의 最終目標은 한사람의 讀者라도 더 증가시키는데 있다. 그렇기 위해서는 圖書館機能의 擴大에 그 依存度를 더욱 높여야한다. 또 우리 出版界는 司書란 專門職으로부터 더 많은 助言을 받아서 그 助言이 良書出版에 보탬이 되도록 빈번한 交流가 이루어져야했다.

끝으로 우리들의 努力이 未洽했다면 현대 圖書館思想에 대한 國民 일반의 이해를 높이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서둘러서 우리는 이 圖書館을 이해시키는 운동부터 着手하여야한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高位層 政策樹立者로하여금 圖書館의 歷史와 傳統이 오래고 國民들을 위하여 철저히 봉사하는 英·佛·北歐의 여러나라들을 長期間 체류 견학하고 돌아와서 이 分野를 전담시키도록 했으면 한다. 그리하여 이들로하여금 우리나라 實情에 맞는 圖書館 확충계획 <長短期計劃書>을 발표하여 全國民과 文化界에 대한 이해와 呼應을 얻도록했으면한다.

오늘날 우리나라 識者層에서 도서관 기능의 停滯를 말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이러한때 前記와 같은 圖書館擴張計劃을 수립 발표한다면 참으로 時宜에 맞는 活動이 될것으로 믿는다. 學校圖書館의 不備를 보고 재정투자를 하겠다하는데 누가 反對할 것인가. 靑少年 善導문제와 오늘과 같이 시끄러운 관에 住宅과 工團 가까운 거리에 작은 마을圖書館을 시설하자는데 누가 그것을 願치 않겠는가.

우리의 先祖들은 일찍이 藏書閣 藏經閣 書庫등을 宮中이나 官衙, 寺院, 鄉校, 書院등에 고루 가지고 있었다. 近世에 나라와서 外侵과 日帝의 強占으로 이러한 文化的 遺産이 破壞되고 忘失된 사실을 상기한다.

이제 우리는 民主國家의 기초를 다져가는 時點에서 과거 先祖들의 슬기를 오늘에 되새기고 現代的 圖書館思想의 普及化에 더욱 힘을 기우려야한다. 이 熱望을 實現하는 方法으로 最近 번지고 있는 家族計劃運動과 같은 구체적인 운동도 펼쳐볼 수는 없을가도한다.

결론으로 圖書館界와 出版界 두 分野는 國民文化의 발전을 위하여 같은 範疇 속에서 일하고 있다는 確信의 根底에서 서로 協力해야 한다. 그러므로 두 關係團體는 隨時 또는 정기적으로 공동목표를 議題로하는 모임도 가져야 할것이다.